

# 국 어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표현의 정확성
    - ㉠ 의미에 맞는 정확한 단어 쓰기.
    - ㉡ 부적절한 피·사동 표현에 유의함.
  -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표현 삼가기
    - ㉢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는 문장을 사용함.
  - 대등한 것끼리 접속
    - ㉣ ‘-고’, ‘-(으)며’, ‘와/과’ 등으로 접속되는 말에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함.

- ①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환급할 예정이다.”를 ㉠에 따라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환수할 예정이다.”로 수정한다.
- ②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시켜야 한다.”를 ㉡에 따라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 ③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를 ㉢에 따라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로 수정한다.
- ④ “사업 전체 목표 수립과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를 ㉣에 따라 “사업 전체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로 수정한다.

2.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삿갓으로 알려진 김병연의 집안은 그의 할아버지인 김익순이 죄를 짓고 사형당하기 전까지 관참은 편이었다. 김병연의 5대조 할아버지 김시태가 경종 초에 신임사화에 연루되었지만, 영조가 즉위한 뒤 그것이 조작된 것임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었다. 김익순은 김시태의 후광을 입어 여러 관직에 나아갔다. 1811년 그가 선천 부사로 재직 중일 때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 이때 그는 반란군에게 항복했을 뿐만 아니라, 반란이 수습될 무렵에는 반란군 장수의 목을 베어 왔다는 거짓 보고까지 했다. 김익순의 이러한 행적이 드러나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사형을 당했다. 이후 김병연은 대역죄로 사형당한 인물의 후손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가 당대의 주류 세력과 관계를 맺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는 20세 전후로 부모가 모두 숨지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세상을 떠돌게 되었다.

- ① 김시태의 후손은 아무도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다.
- ② 김익순은 김시태의 죄상이 드러나 재산이 몰수되었다.
- ③ 김병연은 자신의 조상이 신임사화에 연루되어 세상을 떠돌게 되었다.
- ④ 김병연은 대역죄인의 후손이어서 당대 주류 세력과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3. 다음 중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품사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단어는 두 가지 이상의 품사에 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밝다’의 경우 ‘날이 밝았다.’에서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라는 의미의 동사이지만, ‘햇살이 밝은 날’에서는 ‘불빛 따위가 환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이렇듯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것을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품사 통용은 동음이의 현상과 구별된다. 즉 품사 통용은 서로 관련된 두 의미가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인 반면, ㉠ 동음이의 현상은 먹는 ‘배’와 타는 ‘배’가 구별되는 것과 같이 서로 무관한 두 의미가 우연히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 ① 그는 여러 문화를 비교적 관점에서 연구했다. / 삼촌은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곳에 산다.
- ② 내가 언니보다 키가 더 크다. / 이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마당의 풀이 잘 크다.
- ③ 오늘이 드디어 기다리던 시험일이다. / 친구는 국립 박물관에 오늘 갈 것이라 한다.
- ④ 나는 어제 산 모자를 쓰고 나갔다. / 형님은 시를 쓰고 누님은 그림을 그렸다.

4. <지침>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때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지침>—
- 서론은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필요성을 포함할 것.
  - 본론은 제목에서 밝힌 내용을 2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2장의 하위 항목이 3장의 하위 항목과 서로 대응하도록 할 것.
  - 결론은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순서대로 제시할 것.

- <개요>—
- 제목: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현황과 그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 1장 서론
    - 1.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방송 산업의 정책 변화
    - 2. (가)
  - 2장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현황
    - 1. (나)
    - 2. 국내 친환경 방송 제작 관련 전문 인력 부재
  - 3장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 1. 국내 방송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제작 지침의 마련
    - 2. (다)
  - 4장 결론
    - 1. (라)
    - 2. 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 실행의 단계적 평가 및 개선

- ① (가):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전략의 필요성
- ② (나): 국내 방송 산업 내 친환경 제작을 위한 지침 부재
- ③ (다): 국내 친환경 방송 제작 관련 전문 인력 채용의 제도화
- ④ (라): 친환경 방송 제작을 위한 세부 지침과 인력 채용 방안 제시

5. 다음 글의 ㉠ ~ ㉤ 중 문맥상 어색한 곳을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면역반응에는 ‘자연면역’과 ‘획득면역’이 있다. 먼저, 자연면역이란 외부 이물질에 대해 내 몸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된 저항 능력을 가리킨다. 자연면역에서는 항원과 항체 사이의 ㉠ 직접적인 일대일 반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들어온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유일한 항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연면역은 세균과 같은 미생물 등을 외부 이물질로 인식하여 제거한다. 예컨대 코나 폐에는 점막조직이 발달해 있어 외부 이물질을 걸러 낸다. 세포 차원에서는 대식 세포의 기능이 자연면역인데, 이 세포는 ㉡ 외부 미생물이 어떤 종류인지에 관계없이 대상을 제거한다.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유일한 항체를 생성하는 면역반응을 획득면역이라고 한다. 획득면역에서는 자연면역과 달리 ㉢ 항원의 종류와 무관하게 특정 항원에 대해 여러 종류의 항체가 반응한다. 일례로 B림프구의 세포 표면에는 특정 항원을 인식하고 그 특정 항원에 결합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를 ‘항원 수용체’라고 한다. ㉣ 항원 수용체는 세포 표면에 형성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항원에 의해 자극된다. 이 수용체가 림프구 세포로부터 떨어져 나와 혈액 안으로 들어간 단백질 단위를 항체라고 부른다.

- ① ㉠: 직접적인 일대일 반응 관계가 존재한다
- ② ㉡: 특정한 외부 미생물에 유일하게 반응하며 그 외의 대상은 제거하지 않는다
- ③ ㉢: 특정 항체가 특정 항원에 대해서만 반응한다
- ④ ㉣: 항원 수용체는 세포 내부에 형성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항체에 의해 자극된다

6. (가) ~ (라)를 맥락에 맞추어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가) 픽셀 단위로 수치화된 이미지 데이터는 하나의 긴 데이터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된다. 초기 컴퓨터의 경우 흑백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는 하나의 픽셀에 대해 흑과 백이 0과 1로 표현되는 1비트로 저장되었다.

(나) 높은 해상도의 구현은 데이터 저장 용량의 문제를 일으켰고, 용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도 함께 고안되었다. 이를 통해 고해상도의 이미지도 웹사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미지를 디지털로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픽셀 단위로 수치화하여 저장하는 것이다.

(라) 하지만 현재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의 픽셀에 여러 색상의 정보를 담게 되었다. 초기 색상 표현은 하나의 픽셀이 흑과 백의 1비트였으나, 최근에는 높은 해상도를 구현하기 위해 픽셀 하나에 32비트까지 사용한다.

- ① (나) - (가) - (라) - (다)
- ② (나) - (다) - (가) - (라)
- ③ (다) - (가) - (라) - (나)
- ④ (다) - (라) - (가) - (나)

[7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누어진 영웅 소설의 세계 구조에서 서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상계의 일이지만 인과론적 구도로는 천상계가 우위에 있다. 천상계의 의지나 그 대리자의 개입에 의해서 지상계의 서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천상계는 지상에서 ㉠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발생과 귀결을 지배하는 초월적 세계로서, 일시적으로 고난에 빠졌던 주인공이 세상에 창궐한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해 주는 근거로 작용한다. 지상의 혼란이나 세계 질서의 모순은 일시적인 것일 뿐 현실의 구체적 갈등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어서 초월적 세계가 이미 설계한 바에 따라 쉽사리 해소된다. 이런 모습의 세계 구조를 ‘이원적 세계상’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판소리계 소설의 세계상은 대체로 일원적이고 경험적이다. 판소리계 소설에는 초월적 세계가 지배적 장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현실의 경험적 인과 관계에 의해 서사가 전개된다. 예컨대 변학도의 횡포로 인한 춘향의 수난, 흥부의 가난과 고난, 심청과 심봉사의 불행, 유혹에 넘어간 토끼의 위기 탈출, 배비장의 욕망과 봉변, 장끼의 죽음 등은 초월적 세계의 의지나 그 대리자의 개입 없이 현실적 삶의 인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웅 소설은 이원적 세계상을 잘 보여 주는 문학적 갈래이다.
- ② 판소리계 소설에서 서사의 인과 관계는 경험적 현실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다.
- ③ 천상계의 대리자가 지상계의 서사를 결정하는 작품에서는 이원적 세계상이 발견된다.
- ④ 영웅 소설에 비해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초월적 세계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8. 윗글의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언니는 꽤 일어나는 물보라에 손을 대었다.
- ② 그는 가까스로 일어나는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 ③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싸움이 일어나는 동안 그는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9.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 영희가 친구 혹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영희는 커피를 마셨다.  
 ○ 영희는 친구 혹은 선배를 만났다.  
 ○ 영희는 커피를 마신 적이 없다.

- ① 영희는 선배를 만났다.
- ② 영희는 친구를 만났다.
- ③ 영희는 선생님을 만났다.
- ④ 영희는 선배와 선생님을 모두 만났다.

[10 ~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광수와 김동인은 한국 근대 문학 초기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이 둘의 작품은 표준어와 사투리의 사용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이광수의 대표작 「무정」에서는 작중 배경과 등장인물의 출신지가 서울이 아닌데도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표준어로 되어 있다. 반면 김동인의 대표작 「배따라기」에서 인물들의 대화는 출신지와 작중 배경에 ㉠ 맞는 사투리로 이루어진다. 작품의 리얼리티를 얼마나 잘 구현했는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무정」보다 「배따라기」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광수의 「무정」을 리얼리티의 구현 정도를 기준으로 낮잡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지방의 사투리를 통일하는 것은 중요한 화두였다. 이로 인해 표준어와 사투리의 위계가 공고해졌다. 당대의 지식인들은 표준어가 교양, 문화, 지식, 과학, 공적 영역 등의 근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투리는 야만, 비문화, 무지, 비과학, 사적 영역 등의 전근대적인 가치를 ㉡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광수가 계몽주의의 신봉자였음을 ㉢ 떠올리면, 그가 「무정」에서 표준어를 사용한 것은 근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이처럼 표준어의 사용은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이는 현대 문학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경리의 「토지」에서 대부분의 인물들은 경상도나 함경도 사투리를 사용한다. 하지만 주인공 ‘서희’는 사투리를 구사하지 않는다. 이는 작품의 리얼리티 형성에 방해가 되지만 해당 인물의 고고함과 차가움을 드러내는 데에 더할 수 없이 적절한 기능을 한다. 「토지」에 사용된 표준어는 인물의 성격을 ㉣ 뚜렷하게 보여 주는 효과를 지닌다.

10.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따라기」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작품의 리얼리티를 확보하였다.
- ② 「무정」에는 근대적 가치의 실현과 관련된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 ③ 「토지」는 ‘서희’의 사투리 사용을 통해 작품의 리얼리티를 구현하였다.
- ④ 작품의 리얼리티를 기준으로 할 때, 「무정」이 「배따라기」보다 더 뛰어나다.

11. 윗글의 ㉠ ~ ㉣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영합(迎合)하는
- ② ㉡: 표상(表象)하는
- ③ ㉢: 상기(想起)하면
- ④ ㉣: 분명(分明)하게

[12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한다. 의식주 같은 기본 생활에 더해 문화생활과 사회 활동도 소비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소비되는 것을 흔히 ‘상품’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재화’라고 해야 하는데, 재화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고 상품은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재화는 인류 역사상 늘 있었지만, 상품은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 출현하였다.

냉전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다. “자본주의에서는 상인이 최고이고, 사회주의에서는 공직자가 최고이다.”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기에 ㉠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상인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으며, 사회주의는 관료제의 폐해로 국가 기관이 부패해서 고위 관료라든가 고급 당원이 배불리 먹고산다는 의미이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볼 때 이 말은 사실에 가깝다.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상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중세의 상인들이 물건을 시장에 팔아 이윤을 얻기 위해 수공업자들을 조직하여 그들에게 자본과 도구를 빌려주고 물건을 대신 생산하게 한 데에서 자본주의가 출발하였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 상품에 기초한 사회로, 상품은 그것이 판매될 수 있는 시장을 전제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상품도 존재할 수 없다. 목수가 ㉢ 집에서 쓰기 위해 만든 의자와 시장에 팔기 위해 만든 의자는 동일한 의자임에도 재화와 상품의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다르다.

이와 같이 상품에는 생산과 유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유통을 맡은 사람이 바로 상인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상인이 최고이다.”라는 말은 만드는데 비해서 파는 이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뜻이다. 자본주의화가 진행될수록 전자와 후자 사이의 차이는 더 커진다.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갈수록 단순해지고 상품의 대량생산은 쉬워지는 반면, 유통의 경우 상품과 최종 소비자 사이의 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므로 생산에 비해 우회로를 더 많이 거치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제조업의 이윤은 적어지고 유통업의 이윤은 많아진다.

12.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주의에서는 유통이 생산보다 중요하다.
- ②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 ③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제조업과 유통업의 이윤 차이는 줄어든다.
- ④ 중세의 상인들은 물건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시장에 팔 물건을 손수 생산하였다.

13. 윗글의 ㉠ ~ ㉣ 중 문맥상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
- ② ㉡
- ③ ㉢
- ④ ㉣

14.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든 기호에는 정보성, 즉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정보성은 기호가 가진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기호에는 정보성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를 가지는 것도 있다. 즉 기호는 정보성만 가진 기호와 정보성도 가진 의사소통적 기호로 구분된다. 가령 개나리가 피는 것은 봄이 왔다는 신호이고 낙엽이 지는 것은 가을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절을 알리기 위해 개나리가 피고 낙엽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적 기호들은 의사소통적 기호로 볼 수 없다. 개인의 지문이나 필체 역시 사람을 식별하는 기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문과 필체가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은 정보성을 가진 기호일 뿐이다. 코넬 도일의 소설에서 설록 홈스는 상대의 손톱, 코트의 소매, 표정 등을 근거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성격을 추리해 낸다. 홈스에게는 이런 것들이 모두 정보를 제공하는 기호들이다. 그러나 이들을 의사소통적 기호라고는 할 수 없다. 반면 인간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기호인 봉화, 교통 신호등, 모스 부호 등은 정보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를 명백히 가진다. 모든 기호를 통틀어 인간의 언어는 가장 복잡하고 체계적인 관습적 기호이며 의사소통적 기호이다.

- ① 전쟁 중에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는 관습적 기호이다.
- ② 일기예보에서 흐린 날씨를 표시하는 구름 모양의 아이콘은 자연적 기호이다.
- ③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얼굴색은 정보성만을 가진 기호이다.
- ④ 이웃 마을과 구별하기 위해 마을의 명칭을 본떠 만든 상징탑은 의사소통적 기호이다.

15. 다음 글의 (가), (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자아 개념이란 자신에 대한 주관적 견해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성격, 태도, 느낌 등을 모두 포괄한다. 자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타인에게서 듣게 되는 나와 관련된 메시지를 들 수 있다. 물론 타인 중에는 자신이 느끼기에 나에게 관련이 적은 사람도 있고 중요한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너의 글은 인상적이야. 앞으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다면 그 평가는 자아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서는 부모, 친구, 선생님 등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가)의 말은 기억에 오래 남기 마련이다.

한편,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자아를 설명하는 개념 중에는 (나)라는 것도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타인을 모범으로 삼아 따라 하거나 타인의 훈육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기보다는 타인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에 대한 타인의 판단을 추정한다. 그러한 추정을 통해 자기에게 생겨난 감정을 알아 가는 과정에서 성숙한 자아를 형성해 나간다.

(가)

(나)

- |             |                 |
|-------------|-----------------|
| ① 관련이 적은 타인 | 거울에 비친 자아       |
| ② 중요한 타인    | 모범적인 타인을 따르는 자아 |
| ③ 관련이 적은 타인 | 모범적인 타인을 따르는 자아 |
| ④ 중요한 타인    | 거울에 비친 자아       |

16. 다음 글의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은?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식단을 조절하거나 근력 운동을 한다.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 따라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

- ① 건강한 사람은 모두 식단을 조절한다.
- ② 식단을 조절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
- ③ 식단을 조절하는 사람 중에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
- ④ 식단 조절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 중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17.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언어는 인간의 지각과 사고, 세계관 등을 결정해. 인간 사고의 내용과 구조는 언어에 의해 형성되며, 이 때문에 동일한 언어를 쓰는 민족은 그 언어에 의해 형성된 공통의 세계관을 갖게 되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반대야.

을: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해서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해. 따라서 사고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를 낳지.

병: 그렇긴 하지. 사고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구사하는 언어의 수준이 높아. 하지만 나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동의해. 남미의 어떤 부족은 방향을 표현할 때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니라 ‘북서쪽’과 같이 절대 방위로 표현하는데,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공간 감각은 이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거든.

갑: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해. 어떤 언어의 화자가 자기 언어의 색채어에 맞추어 색깔을 구별하는 것을 그 사례로 들 수 있어. 이런 점에서 언어가 없다면 인식하고 사고할 수 없다는 말도 성립해.

을: 언어가 미숙한 유아라든지 언어가 없는 동물들도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사고하고 판단하잖아. 이건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이지.

병: 나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한다고 생각해.

- ① 언어와 사고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에 대해 갑과 을은 동의하지 않지만 병은 동의한다.
- ②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갑은 동의하지만 을은 동의하지 않는다.
- ③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점에 대해 갑과 병은 동의한다.
- ④ 사고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를 낳는다는 점에 대해 을과 병은 동의한다.

18. 다음 대화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갑: 친구에게 보내는 감사 메일에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건강해라.”라고 적었는데, 다른 친구가 그건 잘못된 표현 이니까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널리 쓰이는 표현인데 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을: 문법 규범에 어긋난 표현이 자주 쓰인다는 이유로 문법 규범 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돼. 문맥상 “건강해라.”는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의미를 지니는데 건강한 상태를 명령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형용사의 명령형은 문법 규범에 어긋난 거니까 사용하면 안 돼. 마찬가지로 어휘도 사람들이 자주 쓴다고 해서 비표준어가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

갑: 문법 규범에 맞게 쓰거나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어야 하는 것은 옳지만, 문법 규범에 맞지 않거나 비표준어라고 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문법 규범이나 표준어는 공통의 언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된 것일 뿐이거든. “건강해라.”는 언중에게 널리 쓰인다는 점에서 사용에 문제가 없어.

ㄱ. ‘쓰여지다’, ‘잊혀지다’와 같은 이중 피동은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는 표현이지만 문법 규범에 맞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갑과 을의 입장을 모두 강화한다.

ㄴ. 명령문 “행복해라.”가 문법 규범에 맞지 않지만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원의 의미로 널리 쓰이기 때문에 써도 된다는 주장은 갑의 입장을 약화한다.

ㄷ. 언중이 비표준어이던 ‘맨날’을 자주 사용하는 현실에 따라 표준어 ‘만날’과 함께 ‘맨날’도 표준어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을의 입장을 약화한다.

- ① ㄷ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ㄱ, ㄴ, ㄷ

19. 다음 대화의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갑: 공무원은 공직자이고 공직자는 그 직책만으로 국가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야. 모든 공무원은 공인이니까 공인 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있어.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 그런 사명감을 가질 의무는 없지.

을: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죽는 것들이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잖아. 네가 “공무원이 아닌 모든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가).”가 참이어야 해.

- ① 몇몇 공인은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다
- ② 모든 공무원은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다
- ③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있는 사람은 모두 공무원이다
- ④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는 사람은 모두 공무원이 아니다

20. 다음 글의 논지를 약화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이 지닌 대부분의 지적 능력을 상회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작동하는 기계 장치를 ‘인공일반지능’이라고 부른다. 이론적으로 인공 일반지능은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기능을 전부 갖게 될 것이다. 인공일반지능의 등장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인공 일반지능의 개발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이 허용된다면 머지않아 인공일반지능은 개발된다. 이로 인해, 인공일반지능은 대부분의 직업 영역에서 인간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소외감을 느낌으로써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다. 또한 인공일반지능이 개발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지구상에서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가 아니게 된다. 이는 인간이 지닌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론적 지위, 즉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므로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은 허용될 수 없다.

- ① 인공일반지능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프로그램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 ② 인공지능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H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개발 연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어 사람들이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 ④ 유관 학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